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신 경 호 이사장

일본학교법인 금정학원(일본)

출생년월일 1963년 3월 19일
출생지 전남 고흥
학력 일본대학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2004)
일본 국사관대학 21세기 아시아학부 교수(2007~현재)
계열사 학교법인 금정학원 수립외국어전문학교(일본)
학교법인 수립일본어학교(일본)
재단법인 수립문화재단(한국)
종업원수 100명
매출액(자산) 200억원(2,000억원)
이주년도 1983년

주요 경력
1985년 5월 일본대학한국인유학생회 회장
1993년 4월 학교법인 금정학원 수립외국어전문학교 한국어학과 전임강사
1994년 4월 한국리쿠르트 주식회사 동경지사장
1999년 4월 일본 고쿠시칸대학 21세기 아시아학과 부교수(2002~)
2005년 4월 학교법인 금정학원 수립외국어전문학교 학교장 · 이사장 취임
2007년 4월 일본 고쿠시칸대학 21세기 아시아학과 증신교수 취임
2009년 4월 주일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학장 및 이사장 취임
2009년 6월 재단법인 수립문화재단 상임이사 취임
2012년 3월 한국일본근대화학회 회장 취임(한국)

사회 공헌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중앙본부 활동비 지원(2016~)
모국 알리기 활동지원
재단한국유학생연합회 활동지원(1998년~)
훈 포상
한일문화대상 수상(2001)
제 569돌 한글발전유공자 국무총리 표창(2015)



유학도시 모습



일본 대학 입학식



신경호 이사장 유학 초기 지내던



신경호 이사장 결혼식에 김희수 선생 주례



신경호 이사장의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임원

21년째 교직원생활에서 지한파 제자 2만명 길러

제일류의 품을 갖고 있던 신경호 이사장은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5,8만명주최운동권 정권 폭격하고 충격을 받아 방학하고 있었을 때, 먼저 유학을 있던 큰 형의 권유로 1983년 일본으로 건너간다. 니혼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한 그는 탁월한 언어와 의질,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정치학을 배워가겠다고 진로를 바꾼 것은 5,8만명주최운동권 같은 불합리한 일을 미연에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한중일 국제관계학과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는 절망적으로 학원에 매달려서 니혼대학 대학원을 거쳐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취득까지 꼬박 22년이 걸렸다.

투철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신경호 이사장은 2000년에 고쿠시칸대학 체육학부 '종합한글'강사로 채용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일본학생들에게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대학 당국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대학에서 조선어학과를 개설했다. 그는 다시 조선어학과를 한국어학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며 결국,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노력의 힘으로 고쿠시칸대학에는 매년 한국 관련 강좌 30여 개가 개설되었고 1천여 명의 일본인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그가 대학교수로 21년째 봉직하면서 길러낸 제자만 2만 명을 넘는다.

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사랑은 2009년부터 주일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초대 및 2대 학장·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로 확대됐다. 한류 붐이 일면서 일본사회에서 한국어와 한국음식, 한국영화 등에 관심을 갖는 일본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내의 한국어 교육 환경의 개선과 교재 연구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국전통악기 교육과정 등을 도입했다. 저명한 한국어 교수진을 초빙하여 한국어 교수 및 한국어 교사 주말 연수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 저명한 한국어 교수진을 초빙하여 일본 지방의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교사 연수 및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통해 지적 양적으로 표현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한글발전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배워야 산다’는故 김희수 선생의 유지받들어 폐교위기 학교 재건

고단한 유학 생활 속에서도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임원을 맡은 신 이사장은 재일동포사회의 지도자됨을 자부 만났다. 특히 제일류표출신 재력가들은 유학생연합회를 후원했는데, 그 중에 적극적으로었던 분이 전 중앙대 이사장이었던故 김희수 금정기업 회장이었다.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김희수 회장의 집무실을 찾아갔을때 "여러분은 한국 미래의 기둥이다. 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에 신 이사장은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인간의 매력을 느낀 신 이사장은 김희수 회장의 평소 지론인 '배워야 산다'라는 教育轉換철학에 공감, 인제대장사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거액(돈줄)이 된 김 회장은 1986년 학교법인 금정학원을 설립하면서 일본과 한국에서 교육사업에 진출했다. 일본에서는 1988년 한국어학과 일본어학과, 영어-중국어 등 4개 학과를 두 수립외국어전문학교를 개교했다. 신 이사장은 설립준비위원으로 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1993년부터 한국어학과 전임강사로서 활약했다. 김희수 회장이 1987년 부도 위기에 빠진 중앙대학교를 인수, 이사장에 취임한 후 대학이 안고 있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기숙사의 도서관을 새로 지어주며 학생회관을 비롯한 부속 건물들 증축하는 등 많은 사학의 재건에 앞장섰다. 그러나 한국의 IMF외환위기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의 영향으로 김희수 회장의 사업세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중앙대학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동시에 일본의 수립외국어전문학교도 재정난을 겪으면서 폐교 위기에 직면했다. 신 이사장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동원 할 명만을 동원한 채 중국과 베트남을 돌아다니며 학생 유치에 힘썼고, 이 과정에서 두 번이나 대상포진에 걸리기도 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학교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올라가자 김희수 선생은 수립외국어전문학교와 2001년 도쿄 코고쿠에 개교한 수립일본어학교의 경영을 신 이사장에게 맡겼다. 활약도 아닌 신 이사장이 후계자가 되어 2005년, 학교법인 금정학원을 총괄하는 이사장의 학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고도의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립외국어전문학교의 학과를 일괄변경학과, 일중통번역학과, 일본어학과로 개편했으며 2013년 4월에는 정보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를 신설했다. 또다른 수립일본어학교는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뛰어난 전문가를 육성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종합적인 일본어 실력을 배양하는 물론, 전문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일본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진로에 맞추어 공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수립일본어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2008년 4월, 중국 동북부의 중심 도시인 대만에 수립중국대외교를 개교, 7년간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김희수 회장의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해 수립일본어학교 교정에 김희수 선생의 영공을 새긴 기념비를 세웠으며 이 해 김희수 선생의 평전 '배워야 산다'(유승준 저)를 펴냈다. 2012년에 돌아가신 김희수 선생이 잘되어 있는 도로 하치오지 묘지를 지금도 자주 찾는 신 이사장은 설립자의 욕망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수립중국



입학식

故 김희수 선생 동상 제막식



단기연수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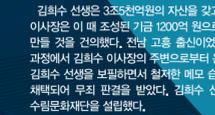
국회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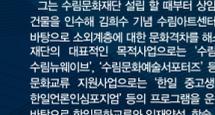
스피치대회



스모크대회



프리랜더스대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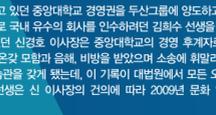
댄스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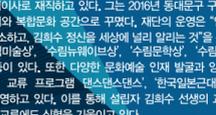
학예회



김희수 선생 묘지 참배



2020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아시아유망인재 산학협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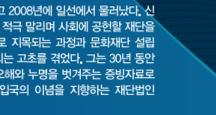
수립문화재단 아카데미 공모전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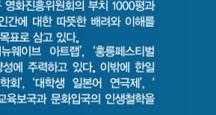
수립문화재단



수립문화재단



프리랜더스대외



댄스 교류



학예회



김희수 선생 묘지 참배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민간교류를 통한 한일관계 신뢰 구축

신경호 이사장의 교육철학은 정의와 성실, 인내와 노력이다. 47지 덕목 중 어느 하나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다. 신 이사장의 교육철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장남과 일본에서 태어난 아들 두 명을 한국의 대학에 진학시켰다. 특히 장남은 해병대를 전역한 후 한국기업에 취직했으며, 차년도 현재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다. 셋째 아들도 올해 한국 대학에 입학했고 장차 해병대에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 투철한 민족의식이 강한 신 이사장은 밤샘머리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훈육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정치 및 경제,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지원(知援)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가 2007년에는 고쿠시칸대학 21세기 아시아학과 증신교수로 임명된 이후 한일 양국 젊은이들이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애를 썼다. 그는 고쿠시칸대학과 고려대를 비롯하여 한양대, 전남대, 인문대, 동의대와 연 2회에 걸쳐 1개월간 일본의 학생들을 파견하는 '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다. 이 협정에 따라 3000여 명의 일본학생들이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왔다. 또한 '교원유학프로그램'을 통해 17년동안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에 17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을 다녀갔다.

셋째, 일본 젊은이들이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믿고 한국 연구과정에서 체험하는 동안 다양한 한국어 배우기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 담당하는 필수 코스로 DMZ와 천안외교기념관,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 등을 선정했다. 일본인 학생들에게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지만, 어두운 과거를 뛰어넘어 이해의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는 낯선 이국 땅에서 배타적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간교류를 통한 문화체험학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연구실에서 학문만을 연구하는 학자보다 실용과 의미를 중시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이 이미지를 강했다. 그가 배재적인 일본 사회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수하는 교육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투철한 민족의식과 유달리 조국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일인간교류를 통한 지식인 양성에 앞장서기 위해 오늘날 신 이사장은 한일 양국을 바쁘게 오가고 있다.



세종문화대 이사장 해외교류부위원장 최우수상 수상

학예회



고쿠시칸대학 한국어연수

2012 전남대학교 국제어학교

고쿠시칸대학 5.18 방문

고쿠시칸대학

수립외국어전문학교



영국 유학시절



학생지도



KOREA TODAY



일본 잡지 표지 모델링 장남 해병대 근무



수립외국어전문학교